

Morning Meeting Brief

산업 및 종목 분석

[EVB Monthly] 2차전지: 중국, 유럽 찍고 미국으로

- 10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 35.8만대(+105.9% YoY), 탑재 기준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15.98GWh(+103.1% YoY) 기록
- 업체별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회복과 함께 CATL이 1위를 유지 vs. LG화학(4GWh, +273% YoY)도 중국 Model3 판매 호조와 유럽 시장의 고성장에 따른 수혜가 지속
- 향후 미국 시장의 성장을 기대: 완성차 시장에서 20%로 유럽과 비슷한 규모이나 전기차의 경우 유럽의 1/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장 성장 여력이 큰 시장.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인 바이든의 당선으로 성장성이 확대
- 현재는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점유율이 압도적이거나 VW, GM 등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신차를 적극적으로 출시함에 따라 한국 2차전지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

한상원, sangwon.han@daishin.com

중국, 유럽 찍고 미국으로

2020. 12. 10

10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 35.8만대(+105.9% YoY) 기록

- 지역별로는 유럽 14.7만대(+178.2% YoY), 미국 3.3만대(+28.9% YoY) 등을 기록 vs. 중국의 경우 Data가 아직 미확정(SNE리서치 기준)이나 약 100%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(17만대 내외)
- EV-Sales에 따르면 10월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14.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0% 증가
- 주요 지역에서 모두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유럽이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
- HEV 비중은 46.2%를 기록하여 포함 시 10월 전기차 판매는 66.6만대(+69.8% YoY)를 기록

10월 탑재 기준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15.98GWh(+103.1% YoY) 기록

- HEV 포함 66.6만대의 전기차 판매는 배터리 기준 16GWh 규모에 해당 vs. 전년 동기 대비 103%의 성장으로 PHEV/BEV 기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유사한 수준
- 업체별로는 중국 시장을 절반 가량 점유하고 있는 CATL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 29%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. 중국 전기차 시장의 회복과 함께 8월 이후 1위 자리를 유지
- LG화학(4GWh, +273% YoY)은 점유율 25%로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, 중국 테슬라 Model3 판매 호조와 유럽 시장 고성장에 따른 수혜가 지속. 참고로 유럽 시장 내 LG화학의 점유율은 약 40% 수준으로 르노(Zoe), VW(ID3), 아우디(E-tron), 현대(Kona) 등이 주요 고객사(모델)
-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모두 1GWh 내외(글로벌 점유율 기준 6% 수준)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0%, 350% 성장 추정

향후 미국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?

- 미국은 성장의 여력이 가장 큰 시장에 해당: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20%로 유럽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기차의 경우 유럽 대비 1/5 규모에 불과. 침투율(=전기차/신차 판매)을 기준으로도 유럽과 중국이 각각 7%, 4% 내외에 이르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 1~2%으로 낮은 수준
- 전기를 포함한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인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확대.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방향성 자체는 분명
- 2020년 누적 기준 테슬라가 64%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GM(7%)과 VW(6%)이 각각 2위와 3위 업체 vs. EVB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는 Panasonic의 점유율이 절대적(76%)이며, GM(쉐보레), VW(아우디, 포르쉐)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LG화학도 점유율 14%로 2위
- 향후 VW, GM 등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신차를 적극적으로 출시할 계획 → 이에 따른 한국 2차전지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
- GM의 경우 LG화학과의 합작사(Ultium Cells)로부터 독점적인 배터리 공급이 예상. 3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NCMA 양극재(LG화학+포스코케미칼)가 적용된 배터리가 생산될 전망
- 미국에서 VW, Ford 등으로부터 수주를 확보한 SK이노베이션도 미국 현지에 약 20GWh 규모의 생산 공장 확보 계획. 소송 관련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1공장(9.8GWh)의 경우 2022년 초 가동 시작 예정

▶ Compliance Notice

- ✓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✓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✓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- ✓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